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교회교육과 정이 반영해야 할 교육적 인간상¹⁾

*Educational anthropological implications for
Korean church curriculum designs confronting the 21st
century secular world views in Korean society*

조성국²⁾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목차

1. 서론	230
2. 21세기 한국 후기현대사회의 인간특성	231
3. 한국교회가 구현해 온 이상적 인간상의 현실과 과제	236
4. 21세기 교회교육과정이 구현해야 할 인간상의 특성	240
5. 결론	246

요약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교회교육과정이 반영해야 할 교육적 인간상

종교적 성격의 세계관인 자본주의, 다원주의, 개인주의가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원리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21세기 후기현대사회에서 한국교회교육은 세상의 시대 정신원리에 맞추어 적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요구에 맞추어 세상을 개혁할 그리스도인을 형성하기 위해 21세기의 과제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는 교회교육과정은 다음의 인간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후기 현대사회에서 교회교육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형성의 과제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후기 현대사회 시대정신은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과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과 교리교육은 논리적 체계성을 더 고려해야 하고, 학생으로부터의 자기정체성 구성과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교회교육과정은 교회의 공동적 정체성 형성을 관심 있게 고려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개인주의는 교회공동체의 지체의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소속감과 지체의를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시대, 교회출석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시대도래의 경고가 많다.

셋째, 교회교육과정은 복음 증거자 양성의 작업을 선연구호 방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세심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후기현대사회의 시대정신은 복음 증거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단념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교회교육의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이 방어적이고 위축된 정체성이 아니라 확신 있고 자신감 있는 정체성이 되고, 그 결과 교회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힘겨운 방어적 노력에 피곤함을 느끼는 패배적 공동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 곧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대응과 과제수행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이 바로 21세기교육과정 개발이 담고 있는 함의라고 본다.

주제어:

교회교육과정, 교육적 인간학, 한국교회, 한국사회, 후기현대세계관

Educational anthropological implications for Korean church curriculum designs confronting the 21st century secular world views in Korean society

Prof. Dr. Song-Guk Joh

In the 21th century Korean society in which capitalism, pluralism and individualism as modern religions are impelling everyone to adjust his thoughts and activities with the world views, Korean churches are planning new curriculums aiming at forming the ideal Christian who may succeed to reform the Korean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 Bible and the Christian world view.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21th century Korean society, new curriculum designers are expected to think over these anthropological implications:

Firstly, Church curriculum designers have to pay much attention to the forming task of the Christian personal self-identity. As post-modern world views disturb forming and maintaining the Christian self-identity, the designers must consider the effective logical presentation of Christian doctrines and the psychological constructing process of growing students.

Secondly, Church curriculum planners have to make an effort to form communal identity, because capitalistic market principles and

individualism weaken the solidarity of church community. Numbers of Christians having no belonging any more and not going to church regularly, will increase.

Thirdly, Church curriculum designers have to seek positively for practical, wise and deliberate ways of evangelism based on various personal relations rather than slogan or impersonal proclamation, because post-modern world views attempt to weaken or compel to give up Christians' evangelical activities.

key words

Church curriculum, educational anthropology, Korean church, Korean society, post modern world view.

1. 서론

교육역사를 살펴볼 때 교육과정의 개편은 다양한 필요에 의해 동기화되었다. 정치사회적인 격변의 원인이 되었던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주도적 교육이론의 초점 변화(지식, 학생, 구성 원리 등)는 새로운 관점과 해석에 따른 총체적 내용개편을 요구했고, 현대사회의 빠른 발전은 새로운 지식과 능력의 보완을 요구했으며, 교육매체와 방법의 변화는 그에 따른 교과서의 개선을 요구했다.

교회교육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과정의 개선요구는 항상 있어왔다. 차이가 있다면 진보신학적 기독교계는 현대사회의 세계관변화에 연동된 신학을 추구해왔으므로 종종 총체적 개편을 요구해온 반면, 개혁주의 및 복음주의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불변하는 가치를 붙잡고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려는 의도에서 내용의 부분적 보완과, 방법 및 교과서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사회 변화는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삶의 방식이든 간에 필연적으로 인간의 의식변화를 동반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의식을 가진 인간은 더 이상 이전의 방식과 도구에 만족할 수 없으므로 새롭

게 변화된 방식과 도구를 요구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간다. 특히 교육은 미래를 지향하여 계획적으로 인간의 성숙과 사회의 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 활동이므로 사회변화에 연동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받는다.

교육과정의 개편작업은 사회의 변화가 무엇이며, 것처럼 변화되고 있는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인간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규명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교회교육과정개선은 이러한 사회변화 안에서 교회가 가진 본질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교육의 방법으로 풀어가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교회교육과정의 개편작업을 위해 시도되는 이 글에서 인간상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 21세기 사회변화에 따른, 그리고 그 변화가 만들어가는 인간특성이 무엇인지, (2) 한국교회교육이 구현해온 인간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3)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 교회교육과정이 구현해야 할 인간특성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려한다.

2. 21세기 한국 후기현대사회의 인간특성

20세기 이후 비약적 발전을 이룬 교통수단의 발달, 산업발전에 따른 노동인구의 이동, 무역에 의한 상품의 이동, 영상문화를 통한 문화의 전파, 특히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의 결과 개인의 소통도구가 된 전파매체의 영향으로 21세기는 전 세계가 더 많은 영역에서 동일한 시대정신을 공유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21세기 후기현대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시대정신의 인간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시대정신과 한국의 독특한 상황을 나누어 정리하고 그 공통성과 차이에 주목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1) 본 논문은 교회교육전문잡지 교회와교육 2008년 봄호의 "조성국 교수의 기독교교육이야기: 21세기 한국사회의 시대정신과 교회교육의 과제", 그리고 고신교단 생명의양식 제5차 교육과정개발총합자료집에 실린 연구자의 강의안: "새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인간상"(2008.6.13.)을 논문의 형태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2)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공부한 후, 남아공화국 네덜란드계 대학교인 Potchefstroomse Universiteit vir Christelike Hoër Onderwys에서 (기독교)교육철학을 공부하여 철학박사학위(Ph.D.)를 받았고, 네덜란드 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하였다. 주요저서로는 「복음 그 신령한 은사」(SFC, 2001), 「한국현대신학과 한국교회의 구원관」(클릭, 2002), 「돈과 경제와 그리스도인」(클릭, 2002), 「약속과 믿음 사이에서」(SFC, 2004), 「메시아적 모형의 리더 다윗」(클릭, 2005), 기독교교육학개론(공저, 생명의양식, 2007) 등이 있다.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에서 기독교교육사, 기독교인간학, 기독교교육철학, 현대기독교교육이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된 근대정신은 민주주의, 제국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정치이념과, 지식에 있어서의 과학적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종교였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 시대정신의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나라 혹은 권역은 미국, 일본, 영어권(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유럽 그리고 중국의 순서이다. 이 순서에 반영된 것처럼 해방이후 우리나라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은 미국과 일본의 시대정신과 많은 부분을 공유해왔다. 그리고 그 시대정신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개인)민주주의와 자본주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제국들에 대한 반동으로 형성된 민족주의였다. 현대한국사회는 이러한 시대정신들의 역동성, 긴장과 충돌로 특징지어졌다. 20세기 말부터 유입된 유럽과 중국의 영향은 한국사회에 시대정신의 다원성을 요구해왔다.

그 배경에서 21세기에 더욱 현저해진 세계 시대정신의 특성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적 경쟁의 정신이 주도적인 시대정신이 되었다.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라는 것은 중국과 인도의 전통문화가 아니라 급속한 자본주의적 성장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적 성장과 성공은 국가적 이상임과 동시에, 공동체와 개인의 이상이 되었다. 세계는 경제적 성장을 위한 치열한 국가적 경쟁, 집단적 경쟁, 개인적 경쟁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성공적 리더로 부각된 경영계 지도자들이 신화화되며, 그들의 책은 영향력 있는 지혜서가 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경제적 보상이 직업의 평가기준이 되었으므로 최상의 인재들이 높은 경제적 보상 분야로 모여든다. 자본주의를 배척했던 사회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자본주의를 수용한 중국이 이상적 모델로 간주될 정도로 자본주의 정신은 세계의 주도적 시대정신이 되었다. 과학과 기술은 자본주의의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이다. 영상문화와 스포츠 등의 대중문화도 자본주의적 이윤동기와 밀

접한 연관관계 안에서 활성화된다.

둘째, 세계의 시대정신은 다원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20세기 전반과 중반까지 절대화된 정치이념들로 빚어진 갈등과 전쟁 때문에 세계가 극도의 피로감을 경험했다면, 20세기 후반 이후는 이슬람과 같은 종교와의 관계, 그리고 소수 민족들의 독립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족주의 이념이 여전히 세계의 불안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노동인구의 이동과 정착, 다국적 기업의 발전, 교육과 문화의 교류 및 해외여행의 영향으로 선진국의 대도시들은 이미 다양한 인종과 국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원적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다원적 사회는 필연적으로 다원적 문화의 수용을 요청한다. 특정 종교와 이념과 문화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간주되는 순간 그로 인하여 다른 종교이념과 문화가 억압받는다고 여기면서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문화와 종교와 이념에 대한 관용은 다원적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 되었다.

셋째,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절대적 보장을 요구하는 개인주의가 주도적 시대정신이 되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하여 당연히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 향유 문제에 있어 그동안 문화와 관습을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받았다고 간주된 여성들의 자기 권리주장이 지속적으로 수용되어 왔다. 성인인 부모와 교사에 의해 지도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행사에 제한받았다고 간주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주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도 성인들로부터의 일방적 이념 및 지식 주입에 순종을 강요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이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성과 연령에 따른 역할개념이 변화하고, 결혼과 가정과 친족이라는 혈연공동체의 전통적 유대감 및 그 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어떠한 것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각 개인은 자신의 존재와 인생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세기의 한국사회를 살펴보면, 전통적 의식과 관습은 근대정신과 삶의 방식으로 급격하게 대체되면서 지속적으로 붕괴되어왔다.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으로 개발도상국가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해오면서 자본주의적 성공 이념은 더욱 이상화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획일적인 집단사회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개인주의 사회로 진입하려는 상태이다. 한국사회가 처한 발전과정의 중간적 수준과 독특한 상황은 위에서 열거한 선진국들의 시대정신의 영향과 공유에 있어도 종종 지적되는 바, 과도한 또는 부정적인 현상과 증후들의 이유이다. 몇 가지를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시대정신은, 한편으로는 경쟁과 성장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수용한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의 형성 과정에 있어 일반화된 윤리성의 부재, 빈부의 격차에 따른 상실감과 분노라는 부정적 특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중적 분열성을 드러낸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쟁을 통한 성장, 대박의 투자를 통한 성공의 신화를 열망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자본주의의 천박성과 폐해를 극렬하게 비판한다. 서구 자본주의 정신의 기반이었던 근면과 절제와 이웃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 법과 계약에 근거한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충분한 경험 없이 사회적 제도와 삶의 방식으로만 수용되었던 자본주의는 도덕성, 시민의식, 기부문화가 부족한, 소위 천박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둘째,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영상매체들은 상업주의적 이윤동기와 연결되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종종 관습과 문화의 금기사항들인 비일상적인 현상의 방영에 초점을 맞추고, 대중의 시선 끌기와 심리적 관심에 초점을 맞춘다.³⁾ 이 과정에서 대중적 스타들은 신화화되며, 가상적 세계, 전위적 대중스타의 생각과 패션과 삶이 현실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전위적인 삶의 스타일이 수용되면서 기존의 관습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결국 다원적 사고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지성보다 감성이 더 주목받아왔다. 특히 성적 매력을 의미하는 몸이 자본주의적 동기와 연결되었다. 그 결과 성형과 운동을 통한 체형 만들기가 대중들의 보편적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사회가 경험했던 전통적 가치와의 급격한 단절과 근대윤리의식의 부재는 이러한 대중문화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켰다.

셋째, 한국사회는 21세기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절대적 근대이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해방이후 자유민주주의라는 명분아래 수용되어온 보수적 자본주의 이념집단에 대항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벌여왔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정치이념의 영향력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주도권을 급속하게 잃어가고 있다. 어느 특정 거대 이념을 절대화하거나 혹은 배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의 입장에서 실용적 태도로 국가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중도의 이념 혹은 실용주의가 한국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중도 이념이 실용주의로 지칭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주도적 자본주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동시에 중도의 태도, 실용주의적 태도, 관용의 태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원주의와 개인주의를 앞당길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3) 김동욱,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서울: 민음사, 1997), 363.

넷째, 한국사회는 단일 인종과 언어와 역사와 함께,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 그리고 유교와 식민주의와 군사문화라는 상황적 조건 때문에 집단문화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집단문화 안에서 대중문화의 파급성과 영향력을 더 강했다. 또 IT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소통의 효율성도 역으로 문화의 집단적 경향성이 유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획일적인 집단문화의 영향력이 강하여 개별적 차이와 독자적 정체성 추구가 늘 위협받았고, 차이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왕따 당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 따라 하기의 스타일이 일반적이었다. 일찍이 다른 나라와의 접촉과 교류를 경험해온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고립되고 집단화되었던 특수성이 경제적 변화의 속도에 비할 때 다원주의와 개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는 더딘 변화를 보여준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향하여 더욱 열려가는 한국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집단주의적 경향성은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이고 그 대신 다원주의와 개인주의는 더욱 진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교회가 구현해 온 이상적 인간상의 현실과 과제

북미와 호주교회의 선교활동을 통해 설립된 한국교회는 적어도 공적인 문헌의 차원에서는 선교한 교회의 신학적 인간상을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교단의 신학적 특성에 따라 개혁주의신학, 복음주의신학, 진보주의신학이 교회교육 인간상 기술의 틀을 제공해왔다.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복음주의 신학에 따라 한국교회의 교육적 인간상은 대부분 개인의 복음적 신앙인격에 맞추어졌다. 특징이 있다면 고신을 중심한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의 모든 관계 영역에서 제자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균형을 강조하였고, 기장과 감리교단은 진보신학의 영향 아래 현실 사회 참여적 제자도를 강조하였다. 20세기 후반 자립적 위치를 갖게 된 한국교회는 세계의 다양한 신학과 교류와 빠르게 변화해 온 한국사회 안에서의 독특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교회교육의 인간상의 요소들을 더욱 확장해 왔다. 그 결과 이제는 교단과 신학의 한계를 넘어, 앞서 열거한 모든 요소들을 포괄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의 교회교육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적 문헌의 교육적 인간상보다 한국사회의 주도적 이념에 맞춘 기독교적 인간상을 추구하였다. 해방이후 감리교단은 한국사회를 주도했던 민족주의 이념을 수용하여 민족주의적 교회교육을 주창하였고, 기장교단은 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교육을 교회교육의 목적으로 선언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보수적인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교단들은 무의식적으로 자본주의 이념을 수용하여 교회성장을 교회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민족운동에 앞장 선 그리스도인, 민주화운동에 앞장 선 그리스도인, 국내외에서 교회성장을 위해 앞장 선 그리스도인 양성이 한국교회의 실제적인 인간상이었다.⁴⁾ 신학의 차이는 신학자들과 일부 목회자들의 문제였을 뿐, 사실상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일반적인 배경을 고려하면서 21세기 교회교육과정의 개편을 앞두고, 필자는 교회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인간상을 규명해보는 이 글에서 좀 더 효율적인 논의의 발전을 위해 필자가 이전에 분석한 바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 따른 신앙교육의 틀로 그 동안 한국교회교

4) 조성국, "한국 기독교교육의 교육적 인간상의 이상과 현실", 기독교교육 논총 제10집, 2004, 223-224.

육이 추구해온 인간상의 특성을 분석해보려 한다.⁵⁾ 칼빈과 개혁주의 교리교육전통의 교육적 인간상은 구조상, (1)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인격 성숙의 차원, (2) 기독교적 구원신앙과 세계관에 관한 지적 확립의 차원, (3) 사회적 공의와 사랑의 실천을 통한 하나님 나라 실현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이 세 차원에서 한국교회교육을 간단하게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⁶⁾

첫째, 한국교회교육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와 인격 성숙의 차원에 집중되어 왔다. 한국교회의 주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체험적 복음 신앙, 기도생활, 박해의 감내, 감성적 영성, 교회 내 사역에의 열정과 헌신, 탈사회적 특성, 개인의 경건강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차원의 교육적 인간상 구현은 다른 나라 교회들과 비교하여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선교지로서의 독특한 상황, 사회적 불안, 종교 문화적 특성 등이 이러한 경향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한국교회가 종종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감성적이고, 비지성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은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이 차원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성향의 교회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구원신앙을 중심한 교리지식과 기독교 세계관 확립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교육적 노력의 양에 비하여 전혀 기대 수준 이하였다. 많은 설교와 집회와 교육활동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교육에 몰두해왔으나 그 교육의 수준은 단순한 복음 사건의 반복적 전달과 개인적 영성적, 정서적 차원의 호소에 머물렀다. 성경에 대한 설교와 교육은 이야기 전달과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성경본문과 성경 전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독교신앙의 체계적 해설문서라고 할 수 있는 공적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는 많은 경우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선언에 불과하였다. 성경에 대한 귀납적 공부도 신학적 이해를 넓혀주기 보다는 개인적 경건생활과 리더훈련의 방법이었다. 기독교학교를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신앙 전체를 심도 있게 이해하지 못했고, 한국의 시대정신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대로 반성하지 못했고, 한국사회의 정치이념선전자들의 공격 앞에서 기독교신앙을 적절하게 변증하지도 못했다.

셋째, 사회적 공의와 사랑의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차원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20세기 말경에야 이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국기독교역사 초기 그리고 6.25 직후 한국선교를 담당했던 북미와 호주의 교회는 병원과 학교교육을 주요한 사역방법으로 간주했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한국교회는 어려운 여건에서 자체의 확립과 성장을 도모해야 했으므로 사회적 공의와 사랑 실천에 대하여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질만한 여유를 갖지 못했다. 오랫동안 박해받아왔던 교회는 한국사회 안에서 고립된 섬처럼 존재해왔으므로 특히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했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집중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그러한 교육은 임의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노숙자, 노인, 장애인, 조선족,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가난한 선교지와 북한주민의 빈곤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고, 한국사회 안에서 주도적인 사랑의 실천 주체가 되어왔다. 그리고 한국정치와 사회운동에의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의와 사랑을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교육의 인간

5) 조성국, "칼빈의 신앙교육에 있어서의 경건", 기독교교육 논총 제9집, 2003.

6) 조성국, "한국 기독교교육의 교육적 인간상의 이상과 현실", 기독교교육 논총 제10집, 2004, 226-235.

상에 있어서 사회적 공의와 사랑의 실천차원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이었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개혁주의 교회교육전통이 보여주는 교육적 인간상의 세 가지 차원에서 볼 때 한국교회 교육은 첫 번째의 차원(개인적 영성) 외에는 미흡한 인간상, 곧 미성숙한 면모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교육적 인간상은 두 번째의 차원(지적 확산)과 세 번째의 차원(사회적 실천)에서 더 보강된 교육목표 달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21세기 교회교육과정이 구현해야 할 인간상의 특성

기독교교육은 가정과 교회와 기독교학교에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상호 협력하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각각의 기관은 그 기관 교유의 본질에 맞게 기독교교육을 실행해야 효율적이다.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은 전체차원의 기본 교육과 더불어 정서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에 더욱 집중된 사랑의 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⁷⁾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신앙적 차원에 더욱 집중하여 성경과 교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증거 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⁸⁾ 그리고 기독교세계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독교학교는 지적 차원에서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고, 기독교세계관을 확립하고, 소명과 은사의 개발로 기

술과 능력을 구비시켜 사회와 세계에서 소명을 수행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⁹⁾

이처럼 가정과 교회와 학교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이면서도 각각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제자도를 형성하고 훈련하고 확대하고 심화시킨다. 물론 기독교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여 기독교가정과 기독교학교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교회의 교육과정이 가정과 교회의 과제조차도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주일에 잠시 이루어지는 교회교육의 과정이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의 모든 과제를 담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경우 교회는 자체의 고유한 교육과제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가정과 학교의 주요 과제를 보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교회의 새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체 기독교교육의 인간상, 혹은 가정과 학교교육과정의 인간상이 추구하는 바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일할 수는 없다.

앞에서 논의해온 바 21세기의 시대정신과 한국교회역사에서의 반성을 참고하면서, 그리고 교회교육의 본질적 구조에 주목하고 동시에 기존의 고신교단의 교육목적과 목표에 반영된 인간상을 고려하면서 새 교회교육과정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을 좁혀 구체적으로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교육과정은 아동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교와 사회가 자본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시대정신을 형성해가고 있으므로 교회는 더욱 그러한 시대정신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비교, 반성하면서 아동이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7) J. M. Spier,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Nutley: The Craig Press, 1979), 201, 205.

8) A. DeGraaff, *The Educational Ministry of the Church: a Perspective* (Nutley: The Craig Press, 1968), 79.

9) P. G. Schoeman, *Wysgerige Pedagogiek* (Pretoria: SACUM, 1988), 99.

을 형성하고 확립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원적 세계 안에서 실용적 방법으로 모든 것을 복합화 혹은 상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색깔 있는 정체성을 가진 아동이 되도록 하려면 아동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이웃,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적 차원에서 그러한 기독교적 관점은 구속 역사적 흐름과 통찰을 보여주는 성경수업, 기독교신앙의 논리적인 구성인 교리수업, 학생의 자기 경험 세계로부터의 기독교적 탐구활동을 통해 반성하면서 재구성하는 수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교육은 성경과 교리교육을 통한 확신에, 그리고 기독교학교교육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세계관의 형성에 더욱 잘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확립이란 지적 정보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정의적 차원에서 그 지식에 동의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확신하는데 이르러야 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방향설정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동적 차원에서 기도와 예배와 경건생활의 일상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설교와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정체성 확립에 몰입해왔다. 그러나 비록 아동의 경우 수용적이어서 추상적이고 반성적 사고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적 교육이 체계적이지도 효율적이지 못했다. 더욱이 교회교육에의 참여시간과 기회가 줄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와 반대로 학교와 사회의 교육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아동의 학습시간 대부분을 점유해 가는 상황에서, 교회교육이 시도하는 성경과 교리교육은 더욱 효율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과 교리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아동은 필연적으로 기독교신앙에 대한 이해의 상당부분을 교회의 해석이 아니라 학교와 사회로부터 얻을 것이며,

그 결과는 기독교신앙의 약화 내지 다른 종교 및 시대정신과의 복합적, 절충적 이해를 통해 다원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다.

둘째, 21세기교육과정은 아동이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공동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공동체는 가족과 국가와 마찬가지로, 거의 선택과 탈퇴가 가능한 집단이 아니다. 아동은 스스로 가족의 일원이고 국가의 시민인 것처럼 새언약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항구적인 지체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다원주의적, 개인주의적 시대정신은 교회를 자신의 편의에 따라 선택과 탈퇴가 가능한 선택기관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교회교육역사에서 교회는 아동이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유아세례를 실행하였고, 그 근거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였고, 청소년기에 교리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동의절차를 거쳐 입교하도록 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회의 정회원을 확인시켰다. 교회는 성례의 차원에서 유아세례와 세례 혹은 입교를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교육의 기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지적 차원에서 아동은 교회의 전통과 전통을 이해하고, 정의적 차원에서 교회의 지체의식을 느끼고, 교회의 예배와 절기와 행사에 익숙하고 편안하게 참여하고, 행동적 차원에서 교회공동체를 사랑하여 헌금과 같은 부분에서 의무를 다하고, 또 교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아동과 청소년과 청년의 교회출석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난 서구교회의 급속한 몰락현상과 비교하면서, 특히 이 두 번째의 정체성 형성 작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21세기교육과정은 아동이 세상을 향하여 확신을 가진, 그러

나 겸손한 아동 증거자가 되게 해야 한다. 세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계와 활동에서 제자도를 실천하도록 전문적으로 구비시키는 교육과제는 기독교학교를 통해 수행된다. 그러나 세상과 관련한 교회교육의 제한된, 고유한 과제는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활동이다. 다원주의적 현대사회는 기독교의 적극적인 전도활동에 대하여, 그것이 과거 구미 제국주의국가들의 침략적 정복행위처럼 제국주의적 발상으로서 타인에게 이념을 강요하는 위협적인 혹은 폭력적인 행위라고 비판한다. 특히 현대인들은 사회적 약자나 아동에 대한 전도활동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반대한다. 다원주의 사회의 후기현대인들은 전도활동을 배제한, 오직 인도주의적 사회 봉사활동과 사랑의 구체활동에만 허용의 태도를 보인다.

교회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복음증거자를 양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후기 현대 사회에서의 모델은 근대적 방식, 곧 서구 기독교제국들의 식민지 정복과 연동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사도들의 시대에 이루어진 방식, 곧 한편으로는 지혜롭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과 희생의 복음 정신에 맞는 방식의 모델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 모형은 개인 내면적 차원에서 확신 있는 증거자, 자신감 있는 증거자이면서, 동시에 밖으로는 우월감, 교만, 강요의 방식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등하고 따뜻한,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한 제안자 모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활동은 개인적 접촉점에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상을 향한 무차별적 선언보다, 자신의 사회생활의 다양한 관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접촉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설득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점의 형성을 위한 노력으로서의 사회적 봉사활동과 구체활동, 정의로운 삶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의와 사랑의 삶 자체가 입을 통한 증거활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

교회교육은 지적 차원에서 아동이 확신 있는, 그리고 자신감 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증거자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한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정의적 차원에서 전도와 선교활동을 향한 내면적 열정을 키워주고, 행동적 차원에서 국내외의 다양한 전도 및 선교 활동과 구체적 관계 맺기, 교회의 증거활동에의 참여, 기도와 지원활동참여, 그리고 아동의 다양한 사회관계에서 직접 증거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이 요청된다.

교회교육이 지향하는 일반적 인간상에서 위의 세 가지 차원은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연령과 성숙의 수준에서 그 비중과 구체적 적용영역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첫 번째(개인적 정체성)와 두 번째(교회 공동적 정체성)에 더 비중이 두어진다면, 청소년기 이후의 경우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증거자)에 더 비중이 두어질 것이다. 그리고 각 차원에서도 지적인 수준에 따라 그 범위의 확장과 수준의 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를 통한 기독교교육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분적이지만 가정의 과제를 수용하여 아동의 건강한 인성형성을 위해 지원하고, 또 학교의 과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기독교 세계관 형성을 돕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개발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수행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전체 과제는 가정과 학교가 기독교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야 달성 가능한 일임에 분명하다. 교회가 기독교교육의 모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기독교가정과 기독교학교교육의 조건이 구비될 때 교회는 교회고유의 교육과제는 더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21세기 후기현대사회는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시대정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다원주의, 개인주의가 마치 스스로 성경의 가르침이나 되는 것처럼, 후기현대인들에게 무조건적 수용을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을 그 원리에 맞추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교육은 그러한 세상의 시대정신원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요구에 맞추어 세상을 개혁할 그리스도인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후기 현대사회가 가르치지 않거나 때로는 적대시하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교육은 교회교육의 고유한 과제이다. 교회는 복음을 확신하고, 신앙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성경적 통찰의 눈으로 후기현대사회의 배교적 시대정신의 정체를 밝히며, 그 시대정신의 과장된 부분을 비판하고 바로 고쳐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편만한 하나님의 세계가 되도록 하는 일에 기여할 그리스도인을 형성해야 할 교육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부응한 21세기 교회교육과정의 개편은, 비록 기독교신앙의 핵심은 불변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과제, 그리고 학생이 경험하는 경험세계의 새로운 조건들을 고려하고, 또 새롭게 발전한 교육적 통찰과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활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후기 현대사회에서 교회교육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형성의 과제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후기 현대사회 시대정신은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과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과 교리교육은 논리적 체계성을 더 고려해야 하고, 학생으로부터의 자기정체성 구성과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

다. 둘째, 교회교육과정은 교회의 공동적 정체성 형성을 관심 있게 고려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개인주의는 교회공동체의 지체의식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소속감과 지체의식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시대, 교회출석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시대도래의 경고가 많다. 셋째, 교회교육과정은 복음 증거자 양성의 작업을 선연구호 방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세심한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후기현대사회의 시대정신은 복음 증거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단념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교회교육의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이 방어적이고 위축된 정체성이 아니라 확신 있고 자신감 있는 정체성이 되고, 그 결과 교회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힘겨운 방어적 노력에 피곤함을 느끼는 패배적 공동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 곧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대응과 과제수행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이 바로 21세기교육과정 개발이 담고 있는 함의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김동욱,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서울: 민음사, 1997).
-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1999).
- 조성국, “칼빈의 신앙교육에 있어서의 경건”, *기독교교육 논총* 제9집, 2003.
- 조성국, “한국 기독교교육의 교육적 인간상의 이상과 현실”, *기독교교육 논총* 제10집, 2004.
- Appleby, J. et al., *Knowledge and Postmodern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6).
- DeGraaff, A., *The Educational Ministry of the Church: a Perspective* (Nutley: The Craig Press, 1968).
- Fowler, S., “Reality, knowledge and African education: in the contexts of a postmodernist world, read paper in Seminar on Postmodernism and Education, Potchefstroom University, 1996.9.19.
- Golverdingen, V. D. M., *Mens in Beeld: antropologische schets ten dienste van de bezinning op onderwijs, opvoeding en pedagogische theorievorming in reformatorische kring* (Leiden: Uitgeverij J. J. Groen en Zoon, 1995).
- Golverdingen, V. D. M., *Inspirerend onderwijs, De pedagogische opdracht van de reformatorische school*, (Leiden: Uitgeverij J. J. Groen en Zoon, 2003).
- Jochemson, T. W., *Circle or Cros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Democratic and the Reformational view on education*, unpublished M. A. thesis,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2005.
- Muynck, B. & Van der Walt, J.L. ed., *The call to know: a view on constructivism and education*,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Motief, 2006.
- Schoeman, P. G., *Wysgerige Pedagogiek* (Pretoria: SACUM, 1988).
- Spier, J. M.,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Nutley: The Craig Press, 1979).
- Sturm, J. C., *Een goede gereformeerde opvoeding* (Kampen: J. H. Kok, 1988).

- VanderWalt, J. L. “Postmodernist anthropology: a few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teaching”, read paper in Seminar on Postmodernism and Education, Potchefstroom University, 1996.9.19.